

## 현행 제 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조사

유 태 명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성의 평가 및 사회적 요구 조사를 통하여 현행 기술·가정 교과과목의 가정과 교육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교과 전문가, 학생, 학부모)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7차 교육과정 상의 기술·가정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최소 필수 내용 및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2002년 4-5월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중·고등학교 기술교사와 가정교사, 중·고등학생, 학부모, 기술·가정관련 연구소 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이었다. 설문지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1,500부를, 전문가에게는 450부를 발송하였으며, 회수율은 중학생 55.8%, 고등학생 56.4%, 학부모 44.9%, 전문가 65.6%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학생, 전문가, 학부모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들 70% 이상이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중학생, 전문가, 학부모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특성 내용에는 전문가가, 성과 이성교제 내용에도 전문가가, 나와 가족관계의 내용에는 학부모가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다.

자원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학부모보다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자원의 활용과 환경보전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약 8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약 60%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일과 시간의 관리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76.1%)와 전문가(75.6%)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생들(62.6%)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전문가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 정도로 매우 높았고 중학생들은 65.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와 조리의 기초와 실제의 내용에 대한 지지가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식사 준비·평가와 식사예절의 내용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91.2%로 가장 높은 지지를, 조리의 기초와 실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학생 7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식단작성과 식품선택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71.2%로 중학생과 학부모보다 높은 지지를 보였다. 식사 준비·평가와 식사예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모두 약 5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낮은 지지를 나타내었다.

의생활 영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복의 기능과 의복계획, 옷의 손질과 보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모두 60% 이상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옷 만들기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의복의 기능과 의복계획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내용으로, 전문가가 79.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옷의 손질과 보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83.4%의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옷 만들기과 재활용의 내용에 대해서 중학생 57.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생활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면 생활공간의 활용과 쾌적한 실내환경의 내용은 응답자의 70% 이상의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주택의 유지와 보수는 약 6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생활공간의 활용의 내용과 쾌적한 실내환경의 내용에 대해서 중학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28.6%, 34.3%)은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가 각각 79.3%와 83%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다. 주택의 유지와 보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학부모, 중학생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